

부처의 자리는 부처다운 실천 끝에 온다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44 금각·은각요괴 만난 현장법사

쉽 없이 나가는 길, 불퇴전의 길... 공자님이 말씀하셨던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길이라고... 아니 죽은 뒤에로도 끝나지 않아! 세세생생 가야 할 길이지!

손오공 일행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다섯이 한 마음 되고, 손오공이 앞장서서 여의봉 뽀내어 앞길을 연다. 그 앞길을 탁하니 가로막는 험한 산이네.

이름하여 평정산(平頂山)이라 현장법사 벌써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정말 이 산은 정말로 보통 아닌 요괴가 사는 산... 앞에 많은 비보통(非普通) 요괴들이 나왔지만 이 산 요괴는 정말 슈퍼 울트라 비보통 이란다.

일행을 뒷전에서 옹호하던 신관이 나무꾼으로 등장하여 머리 경계를 할 정도다. 연화동(蓮花洞)이란 동굴이 있고 그 속에 금각(金角), 은각(銀角)이란 요괴가 사는데 현장법사 잡아먹으려 초상까지 머리 그려놓고 목을 빼고 기다린단다.

손오공도 은근히 걱정되어 저팔계에게 순찰을 시키고는 아침에 저팔계 기강도 좀 잡을 생각으로 모기로 변하여 저팔계에게 붙어 간다.

아니나 다를까 저팔계 농맹이 실력 나온다. 한 잠 폭 자고 바윗돌 앞에서 거짓말 예행연습을 한다. 산이 무슨 산이냐고 물으면 돌산이라 하고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하면 돌 동굴이라 하고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쇠뿔을 박은 문이라 하고...

저팔계가 어떻게 처절하게 당하는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단단히 혼이 난 저팔계 다시 순찰에 나선다. 이제 제 그림자에도 놀라

“형님, 따라오실 필요 없잖아요!” 할 지경. 억지로 성실히 순찰을 하던 저팔계가 역시 현장법사 일행 잡으러 나온 은각대왕 일행과 마주친다.

돼지주둥이 억지로 웃으며 감춰보지만 초상화 대조에 걸려 드러나 버리니 할 수 없이 한바탕 싸움-은각대왕 하나면 어찌 버티겠지만 못 줄개들과 와르르 텨버니 수가 없다.

공공 묶여 연화동으로 잡혀가네. 저팔계 잡아와 뽀내는 은각대왕... 형님 금각대왕 오히려 걱정을 한다. 저놈이 문제가 아니다. 제전대성 손오공이란 놈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를게다.

어려라. 이 요괴 이상하구나. 제전대성이라는 손오공 과거를 다 알고... 아무튼 은각대왕 다시 나서고 술수를 부려 다리 부러진 도사로 변장... 손오공 일행 앞에서 끄끙거리며 엎어져 있다.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 호랑이 만나 제자는 물러가고 자신은 도망치다 산기슭에서 굴렀다고... 저비심 넘치는 현장법사 손오공에게 요괴를 얹게 한다.

손오공은 이미 요괴인 줄 알지만 과거 전력이

있어 단매에 때려죽이진 못하고 뒤로 처져서 어디에 팽개쳐 죽일 궁리를 하는데 요괴도 그 속 편히 안다.

신묘한 술법을 부려 수미산(須彌山)을 옮겨 손오공 머리를 누른다. 손오공 슬쩍 머리를 빗겨 왼쪽 어깨로 받아낸다. 끄떡도 없다.

놀란 요괴, 다시 아미산(峨眉山)을 불러 누르는데 이번엔 오른쪽 어깨로 받아내고 여전히 씩씩하게 나간다.

정말 더더욱 놀란 요괴 이번엔 태산(泰山)을 불러내어 누른다. 손오공도 여기에엔 당하지 못하네. 세 산에 깔려 피를 토하고 엎어진다.

이제는 되었구나!
요괴 현장법사 일행을 덮치니 사오정 혼자로는 감당을 못하고 결국 모두 잡혀 연화동으로 끌려간다. 은각대왕이 이렇게 공을 세우 돌아오니 금각대왕도 입이 썩진다.

이제 맛있게 요리해 먹는 일만 남았구나.
“그래도 손오공 놈이 걱정되니 아예 속 시원히 뒤처리해 해 놓자!”

형님의 걱정에 은각대왕 큰 소리를 친다.
“줄개놈들만 보내도 돼요. 이 두 보물이 있었어요?”

“오, 그렇구나! 그럼 보물 들려 두 놈만 보내자꾸나!”

도대체 무슨 보물이기에 제전대성 손오공을 그리 가볍게 처리한다는 말씀? 자금홍호로(紫金紅葫蘆)와 양지옥정병(羊脂玉淨瓶)이라 상대방 이

태산에 깔려 위기에 처한 손오공 연화동에 끌려간 현장법사 일행 죽음 아는 것은 삶을 잘 아는 것 “지금 이순간 매진하면 생사 초월!”

름을 불러, 상대가 대답만 하면 병속으로 빨려 들어와 온 몸이 녹아버린단다. 신통한 병, 무서운 병!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기애 그 이름을 매개로 이런 신묘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손오공이 이 병에 빨려들면 어찌 될까!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 봤지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체를 한번 옮겨 보지요.

“선비는 뜻이 크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먼니... 어집(仁)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얼마나 무거운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얼마나 먼가!”

유가(儒家)의 말이지만 우리 불교에 그대로 해당시켜도 되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우리 부처님 문중에서는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공자야 죽음을 묻는 제자에게 “살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였지요. 죽음에 대한 앎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중심으로 삼는 공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

지요. 그러하기에 죽음 뒤의 일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고, 삶이 이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리라!”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극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아니 공극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보살도를 행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에서 공극의 경지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겠지요. 언제나 지금의 생애 깨달음을 이루어라는 서원으로 실천은 해 나가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생애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요? 수많은 겁을 수행하여 부처에 이른다는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지금’, ‘여기’ 일 뿐입니다. 오는 생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지금의 생애 달려 있지요. 과거의 생애 어떠했는가? 그것은 지금의 생애 보면 되지요. 언제나 지금과 여기,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삶을 아는 것으로 돌아오지요.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자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이 다를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괜히 과거의 생애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또 미래의 생애 어떤 것인가 미리 내다보려 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여기! 과거와 미래가 한 순간에 펼쳐지고 있으니깐요. 부처님의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도 결국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슬쩍 공극의 경지에 이르러도 끊임없이 보살도,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지요. 하하. 어떤 분들은 부처 이루면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초월하고 편안하게 있는 걸로 아시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인 까닭은 바로 그 부처님다운 실천에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끊임없이 남을 보살피고 수고롭게 실천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가 물었다지요. 부처님은 이미 완전한 경지를 이루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짓는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란 자리는 가서 눌러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처다운 행을 이어나가는 모습, 그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기서 삼매선생,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요. 부처님은 한평생을 돌아다니셨는데 불상은 왜 앉은 불상만 있는 것이지요? 걸으시는 모습을 한 불상을 좀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면... 돌팔매 날아 올까요? 돌팔매 맞을 각오로 걷는 불상을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부처 자리는 그렇게 가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처다운 실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애구. 돌팔매 무서워 ‘것, 것...’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삼매선생의 주장에 호응하는 분이 몇 분은 계시리라 믿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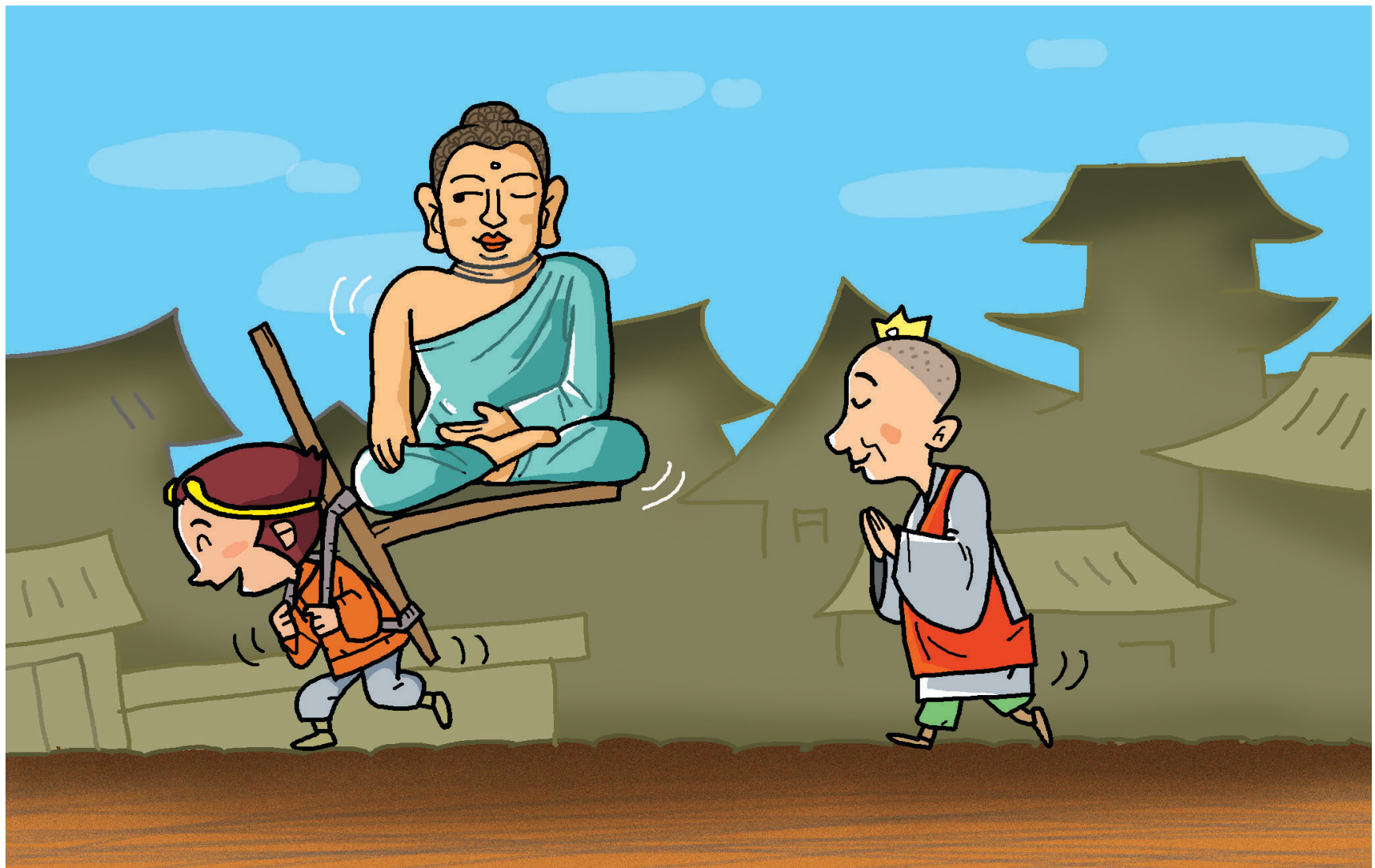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품: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송: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龍, 그 생명력과 진실성....

- 용왕단(소원 성취단) 기획 불사 지원.
- 구룡의 소원으로 사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소원지, 소원등, 소원의나무, 소원종, 소원의풍경 등 수십가지 아이템기획, 보유)
- 기획부터 수익까지 책임 불사를 해드립니다.
- 25년, 불교조각연구원의 야심찬 기획.

- 제 목: 구룡의 기원
- 크 기: 49.586 m² (15평)
- 작품소장사찰: 강화(석모도) 보문사
- 기획불사상담문의: 불교조각연구원
031-429-1077 / 010-9468-1088

